

1	⑤	2	②	3	④	4	⑤	5	②
6	③	7	①	8	④	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⑤	15	④
16	④	17	⑤	18	⑤	19	⑤	20	③
21	④	22	③	23	④	24	①	25	③
26	②	27	⑤	28	③	29	③	30	①
31	④	32	③	33	④	34	②		

[1-3] 성호 이익의 독서법

1. ⑤

정답 이익은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하였다.

- ①, ②, ③ 이익의 독서법 중 ‘반복 독서’에 해당한다.
- ④ 이익의 독서법 중 ‘질문 독서’에 해당한다.

2. ②

정답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책 자체에 대한 의미 파악과 이해는 높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①, ③, ④, ⑤번은 모두 독서를 통한 지식이 실질적인 현장에 활용될 수 있다.

3. ④

정답 국가의 정사를 물으나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으니’는 질문 독서가 아닌 실천 독서에 대한 물음이다. 관료들의 독서는 세상에 실질적인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출제의도 ④번 선택지의 ‘물으니’와 ‘질문’을 연결시켜 지문과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은 학생들이 오답을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9] 칸트와 니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

지문 (가)와 (나)는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헤겔의 변증법] 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복수 지문 문제의 경우 우선적으로 (가)와 (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가)에서 말하는 칸트의 아름다움과 (나)에서 말하는 니체의 아름다움은 대비된다.

4. ⑤

정답 칸트가 말하는 취미판단이란 우리의 감각적 쾌락과 도덕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 ① 칸트는 아름다운 것을 판정하는 마음의 능력을 ‘취미’라 부른다.
- ② 칸트에게 아름다움이란 개별 주체가 대상을 무관심적 상태에서 마주했을 때 가지는 인식능력들이 자유롭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갖는 ‘평정과 고요’의 쾌감이다.
- ③ 칸트는 취미가 제대로 작동하여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의 그 심적 상태를 ‘무관심적’이라고 규정한다.
- ④ 칸트에게 아름다움이란 다른 어떤 목적이 없어도 취미를 통해 가지는 즐거운 감정이다.

5. ②

정답 니체는 미적 경험이 삶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인 순수한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미적 경험이 삶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칸트의 생각이며, 그는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의 심적 상태를 ‘무관심적’이라고 규정한다.

출제의도 아름다움에 대한 니체의 관점과 반대되는 칸트의 관점을 역으로 (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글의 단순한 내용만 파악했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다.

- ① 칸트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인식판단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 ③ 아름다움에 대한 니체의 관점에 해당한다.
- ⑤ 니체와 칸트 모두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판단을 중요시 한다.

6. ③

정답 니체에게 미적인 것이란 더 이상 대상이 갖고 있다고 하는 비례나 명료함 따위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개별 대상에게 어떤 대상이 촉발한 주관에 갖는 감정을 지칭한다. (나 1문단)

- ① 아름다움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다.
- ②, ④, ⑤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해당한다.

7. ①

정답 칸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무관심의 상태에서 지켜보는 ‘즐거운 감정’이다. 하지만 <보기>의 송고에는 ‘아름다움’과 ‘공포심’이 모두 포함되기에 칸트가 언제나 송고를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출제의도 <보기>는 ‘숭고’라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숭고란 아름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심’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보기>와 (가)의 칸트, (나)의 니체의 생각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 ② (나)의 니체는 <보기>와 (가)의 칸트가 모두 미적인 것을 ‘감상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아름다움은 ‘주관적 감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의 칸트와 (나)의 니체, <보기>는 동의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니체는 아름다움이 삶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는 숭고가 ‘실제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 안전한 거리의 확보’하기 때문에 단순한 공포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 ⑤ (가)와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무관심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8. ④

정답 니체에게 아름다움은 더 이상 대상이 갖고 있다고 하는 비례나 명료함 따위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분할의 비’라는 객관적 속성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니체에게 중요하지 않다. 또한 니체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감상자’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오류다.

출제의도 <보기>을 의도적으로 길게 제작하였다. 특히나 중간에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제시하여 문항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과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서양의 천문이론]의 <보기> 문항과 유사한 경험을 의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문과 <보기>의 핵심을 잘 파악했다면 정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 ① <보기>에 따르면 ‘황금분할의 비’는 인접한 두 항간의 관계이다. 13과 34는 <보기>에 제시된 피보나치 수열에서 인접한 두 항이 아니다.
- ② (가)에서 칸트는 취미판단은 지성개념에 따르는 과학적 인식판단이 아니라고 한다.
- ③ (가)의 칸트와 (나)의 니체 모두 아름다움은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
- ⑤ (나)에서 니체는 아름다움이란 삶과 연결되어 각종 욕구와 충동, 도덕법칙이나 감각적 자극 등의 힘들이 상호작용하며 몰아가는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황금분할의 비’를 실제 자연에서 느낄 수 있고 개별 주체가 이를 아름답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삶의 차원’에서의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

9. ②

정답 ‘특정되다’는 ‘특별히 지정되나’라는 뜻으로, ‘작동하다’와는 다른 의미이다. ‘작동하다’는 ‘기계 따위가 작용을 받아 움직이다. 또는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0~14] 그림자은행과 안전자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짝수 학년에 경제, 홀수 학년에 법학 관련 지문을 출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경제 지문은 자세히 봐야하고 지문의 특성상 약간의 배경지식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지문에서 그림자은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급진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지만 그림자은행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입장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는 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미토콘드리아]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다.

10. ③

정답 5문단에 따르면, 그림자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11. ④

정답 주류 경제학은 그림자은행이 안전자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부족한 금융기관 자체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반면 급진 경제학은 그림자 은행의 부정적 속성에 주목하여 공적 규제를 주장한다.

- ③ 급진 경제학에서는 그림자은행을 금융기업이 고수익·고위험의 투자를 위해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금융혁신을 일으킨 결과라고 보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림자은행을 변화된 경제적 환경에서 안전자산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12. ③

정답 장기 안전자산이 충분히 생산되면 이윤율이 높아지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출제의도 추론 문항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에 근거한다. 여기에 더해 선택지의 앞 뒤 상황을 비교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예를 들어, 만약 지문에서 ‘A는 B이다’라는 정보를 주었지만 이것이 ‘B는 A이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항은 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버슈팅]과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브레턴우즈 체제]의 추론 문항에 기반하여 제작하였다.

- ①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주가는 상승한다.
- ② 그림자은행이 안전자산을 생산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윤율이 낮다면 그림자은행은 더 많은 안전자산을 생산하려 할 것이다.
- ④, ⑤ 금융기관의 장기 안전자산이 줄어들고 이윤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높아진다. 선택지의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

13. ③

정답 주류 경제학은 그림자은행이 안전자산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의 A국의 안전자산인 국채는 199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B국이 A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A국은 더욱 안전자산이 부족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더욱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자은행을 이용할 것이다.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출제하였다. <보기>는 지문에서 설명한 그림자은행이 안전자산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생들이 A국이 보유한 안전자산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윤율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그림자은행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랐다. 지문과 선택지는 모두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브레턴우즈 체제]의 <보기> 문항을 참고하였다.

- ① <보기>에 따르면 A국의 국채는 시장 수요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낮은 이익률로 인하여

A국의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B국이 A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켜 A국 국채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 ④ 지문에 따르면 안전자산이 부족하면 상품·금융 거래가 크게 제약받는다. 현재 A국의 안전자산은 줄고 있는 반면 B국의 안전자산은 A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A국의 상품거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⑤ B국은 A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는 B국 금융기관의 이익율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B국 금융기관의 주가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위험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14. ⑤

정답 지문에서 ‘발생해도’는 금융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발생했다는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 ‘재발해도’는 문맥상 ㉠와 바꿔 사용할 수 없다.

- ①, ②, ③, ④ ‘발생해도’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18] 지진의 발생 원리

15. ④

정답 압력으로 가득찬 지하는 빈 공간이 없어 단층을 만들게 되고, 이 단층이 움직일 때 생성되는 파동 에너지가 지진이다. 이 때 파동 에너지는 사방으로 전파된다.

- ② 지진의 진도는 진앙에서 멀어지면서 감소한다.
- ⑤ 연약 지반이나 수분이 많은 지반은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16. ④

정답 암석이 취성 변형을 선호할 때 강력한 힘이 가해져 부서지게 된다.

- ① 지구 표면에서 암석은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취성 변형)을 더 선호한다.
- ②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암석은 ㉡(연성 변형)을 더 선호한다. 즉 지구 내부라도 온도와 압력이 높지 않다면 암석은 ㉠을 더 선호할 것이다.
- ③ 지구 내부의 높은 압력과 온도 때문에 암석은 ㉡(연성 변형)을 더 선호한다.
- ⑤ ㉠(취성 변형)으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17. ⑤

정답 액상화 현상은 건물에 수직적 진동을 일으켜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은 좌우보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것이다.

- ① 연약 지반에서 액상화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 ② 지반이 수분을 머금고 있거나 지하수가 풍부하다면 지진 시 수압이 상승하여 지반은 상대적으로 침하하게 된다.
- ③ 규모가 큰 강진이 일어나거나 연약 지반, 간척지, 해안 지역 또는 지하수 등 수맥이 지나가는 진앙 부근에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 ④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수도관, 가스관 등의 공급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

18. ⑤

정답 ‘이상진역’은 일반적인 지진과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진도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다. 오히려 진앙에서 멀어질수록 지진파의 증폭등의 이유로 진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진의 시작 지점인 진원이 깊어질수록 더 현저하게 발생한다. 진앙 A에서 발생한 지진은 <보기>의 도표를 참고할 때 각 도시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예상 진도가 강해진다. 즉 ‘이상진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앙 A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강해진다 D의 예상 진도는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운 C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출제의도 8번 문항과 같이 보기를 난해하게 구성하였다. 설명, 그림, 도표가 모두 제시되어 있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먼저 겁을 먹는다면 쉽게 해결하기 힘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보기>에 제시된 ‘이상진역’이 지문에 설명된 일반적인 지진과 ‘무엇이 다른가’이다.

다음으로 제시된 그림(지도)과 도표를 함께 보며 각 진앙 A와 E에서 발생한 지진의 종류를 ‘일반적인 지진’과 ‘이상진역’으로 구분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학생들이 ‘이상진역’의 개념을 오해하여 ④번을 선택하게 유도하였으며, ‘상대적으로’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면 ⑤번 선택지를 고르기 어렵게 출제하였다. <보기>의 제작 방식은 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양과 서양의 천문이론]을, 선택지의 제작 방식은 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미토콘드리아]의 <보기> 문항을 참고하였다.

- ① 연약 지반은 지진파를 증폭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 ② 액상화 현상은 도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상 진도가 낮아도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 ③ 지진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며, 이 때 사람들은 지진을 거의 동시에 느낀다.
- ④ <보기>에 따르면 이상진역이란 지진파의 전달거리와 진도가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다. 즉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지진파에 의한 진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거리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며(만약 이상진역을 거리가 멀수록 지진파가 강해진다고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상진역과 일반적인 지진 모두 지진으로서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진도는 높아진다. 따라서 이상진역에 해당하는 진앙 A 지진과 진앙 E 지진의 진앙이 모두 D와 가까워진다면 D의 예상 진도는 높아질 것이다.

[19-23] 「사하촌」

19. ⑤

정답 진수의 집 사랑에서 간평원들을 위해 열린 잔치의 모습을 작품 밖의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다. ‘종종결음’, ‘침을 푹푹푹’,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풍자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② 상징적 소재는 찾을 수 없다.
- ③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되지 않는다.
- ④ ‘진수의 집 사랑’과 ‘대문 밖’이라는 두 공간이 등장하기는 하나, 서술자에 의한 상황 묘사일 뿐 공간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20. ③

정답 조합 이사의 “고 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 다 내고서 또 무슨 뉘대로 여기 오우?”에서 고 서방은 작년 소작료를 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④

정답 @은 마을사람들이 고 서방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2. ③

정답 조합 이사가 다녀간 후 마을의 여기저기에 입도차압 팻말이 붙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분함을 느끼며 마을 야학당으로 모인다.

- ① 마을에 대한 간평은 보광사 직원들이 하고 있다.
- ② 간평원들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공간은 진수네 집 사랑이다.
- ④ 아낙네들은 보광사로 떠나는 남정네들을 걱정하고 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보광사로 떠난다.

23. ④

정답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는 조합 이사의 말로, 매년 소작료를 내지 않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화를 낸 것이다.

출제의도 현대소설은 인물들이 대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과 해당 장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대사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는 자칫 마을 사람들이 보광사 간평원들에 대한 불만으로 보일 수 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무사와 악사] 지문은 [앞부분의 줄거리] 이후 대사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 ① <보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작가들은 일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여러 방식으로 우회하여 비판하였다.
- ② ‘실지 조사’는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이는 일제를 상징하는 ‘가뭄’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조합 이사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한 후 마을 여기저기에 입도차압 팻말을 붙이며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수탈한다.
- ⑤ <보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친일파인 보광사에 울분을 표출하기 위해 야학당으로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다.

[24-26] 「조흥시가」 / 「동그라미」 / 「권효가」

24. ①

정답 <제1수>에서는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의 고사를 활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제1수>에서 색채 대비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제3수>에서는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하여 부모님을 더디게 늙게 하려 한다.
- ④ <제3수>에서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⑤ <제4수>의 군봉과 외가마귀는 비유의 대상일뿐 의인화되고 있지는 않다.

25. ③

정답 (나)의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에서 알 수 있듯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가)의 <4제수>에서는 부모님을 뜻하는 군봉 무리에 외가마귀가 들어왔지만 외가마귀도 봉황과 같다고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부모도 공경하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6. ②

정답 (가)의 ‘만균을 늘여 내어’는 복당에 계신 부모님을 높이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화를 통해 물질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이는 (나)의 <제5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효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가), (나) 각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다. 전통적인 효의 모습을 (가), 근대화로 인해 변질된 효의 모습을 (나)에 연결지을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다. 즉 ‘<보기> 이해 - 지문 분류’의 과정을 의도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학 지문의 <보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 ①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는 부모님이 현재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기에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효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그대몸이 소중하면 부모은덕 생각하고’는 근대화로 인해 후퇴한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다시 권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27-31] 「숙향전」

27. ⑤

정답 ‘이때 김 상서(승상)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에서 용녀는 과거 승상의 도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사향이 숙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한다.
- ② 행인은 숙향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으나 어쩔 수 없어 도와주지 못한다.
- ③ 부인은 숙향의 방에서 사향이 훔쳐간 금봉차와 옥장도를 찾는다.
- ④ 숙향을 도와주기 위해 용녀와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를 보낸 것은 항아이다.

28. ③

정답 ㉠에서 부인은 숙향의 방에서 금봉차와 옥장도를 찾기 전까지 숙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숙향을 믿으며 숙향이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향은 숙향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며, ㉡에서 숙향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에서 부인이 숙향을 믿기에 걱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에서 사향은 숙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 ② ㉠에서 숙향을 믿고 있지만 ㉡이 숙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은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사향의 숙향에 대한 모함에서 비롯하였다.
- ⑤ ㉠은 승상이 아시면 큰일날 수 있기에 숙향이 빨리 떠나기를 촉구하며, 이는 다가올 위험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 단지 숙향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29. ③

정답 [A]에서는 숙향과 부인, 승상, 사향의 갈등이 심화되지만 [B]에서 숙향은 위기에서 빠져나오나, [A]의 인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② [A]는 숙향과 부인간의 대화를 통해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B]는 용녀의 과거 사건 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B]에서 용녀가 숙향이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에서 앞으로 숙향에게 닥칠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A]에서는 단지 부인과 숙향의 현실적인 대화만 오가지만, [B]에서는 사해용왕이 등장하고 소아가 적강하는 등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

30. ①

정답 ㉠에서 부인은 사향의 말을 듣고 숙향의 방에 금봉차와 옥장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출제의도 대사에 따른 인물의 의중을 파악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문의 단순 내용을 넘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출제하였다.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배비장전]의 문항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 ㉠: 부인은 잔치에 가기 위해 금봉차와 옥장도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모습이다.
- ㉡: 숙향이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의 말에 변론하는 모습이며, 숙향이 부인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 ㉢: 사향이 집을 떠나지 않는 숙향을 내치는 모습이며, 숙향에 대한 의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 ㉣: 검은 것이 변하여 된 계집아이가 용녀에게 숙향을 구하게 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며, 용녀에 대한 의심은 드러나지 않는다.

31. ④

정답 금봉차와 옥장도를 잃어버린 부인은 이들을 찾기 위해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하지만 사향은 같은 노비임에도 죄를 받지 않았다. 이는 사향의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라는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보기>에 따르면 사향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일반적인 노비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졌기에 죄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에서 시녀는 잘못을 하면 죄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녀가 사향처럼 일반적인 노비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출제의도 「숙향전」은 일반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자유로운 연애,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적강 등의 소재로 출제된다. 하지만 다른 소설들과 ‘노비’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제작하였다. 비슷한 소설로는 「운명전」과 「숙영낭자전」이 있다. 사향이 일반적인 노비와는 다른 지위를 갖기에, 다른 노비(수정궁의 시녀)와 다르다는 것이 <보기> 문항 해결에서 가장 중요했다.

- ① 사향은 숙향을 모함하기 위해 승상과 부인의 명령없이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쳤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일반적인 노비와는 달리 사향은 집안일을 도맡아 영향력이 강했기에 부인이 사향의 말만 믿고 속향을 문책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사향이 승상의 딸인 속향을 내칠 수 있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사향이 일반 노비와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 ⑤ <보기>에 따르면 사향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속향을 위기에 빠트렸고, 그 결과로 속향은 울며 승상 집을 떠나게 되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의 욕망으로 인한 신분제도의 폐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32-34] 「나팔꽃」, 「새벽 편지」

32. ③

정답 (가)에서는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해당 표현은 다소 어렵고 인지하기 힘든 표현법인데, 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된 김시습의 「유객」에서 ‘나그네’가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계속해서 나팔꽃을 관찰하고 있을 뿐 시선이 점점 가까운 곳으로 향하지 않으며, 심리의 변화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하강의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나)에서 화자는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새벽에 편지를 쓰는 행위를 통하여 이겨내려고 한다.

33. ④

정답 ㉠의 은은한 종소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나팔꽃이 내고 있는 소리이기에 화자가 아침에 이 소리를 듣고 있다. 하지만 (나)의 시적 시간은 새벽이며, 화자는 다가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벽에 편지를 쓰고 있다. 즉 ㉠은 아직 화자가 경험하지 못한 소리이다.

- ① ㉠에서 화자는 나팔꽃을 통해 ‘한계 극복’이라는 깨달음을 얻지만 ㉡이 화자를 반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화자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 화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 ③ ㉠과 ㉡ 모두 화자가 자연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⑤ ㉠에서 화자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지 않으며 ㉡을 위해 화자는 고통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

34. ②

정답 (가)의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는 화자가 아닌 나팔꽃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뜻한다.

출제의도 문학 지문에서 출제되는 <보기>는 대부분 해당 작품의 주제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충 주제만 파악하고 문제를 푼다면 엄밀한 시적 상황에서 정답을 고르기 힘들 수 있다. 즉 <보기>에서 나타난 주제와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규원가]의 <보기>와 정답 문항이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 ① <보기>에 따르면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라는 실제 의미가 있으며 그렇기에 화자는 나팔꽃이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마다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에서 나팔꽃은 바지랑대 끝을 계속 타고 올라가며 자신의 밤 사이 한계를 극복하였고 그렇기에 아침에 ‘은은한 종소리’를 내고 있다.
- ④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화자를 고통받게 하는 존재들이고, 이들은 새벽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화자는 새벽에 편지를 쓴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반짝이는 별’은 ‘새벽’이라는 어두운 시간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미적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